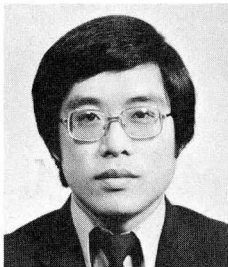


1,450원에서 1,600원대 지속 전망



함 병 은
(본회 지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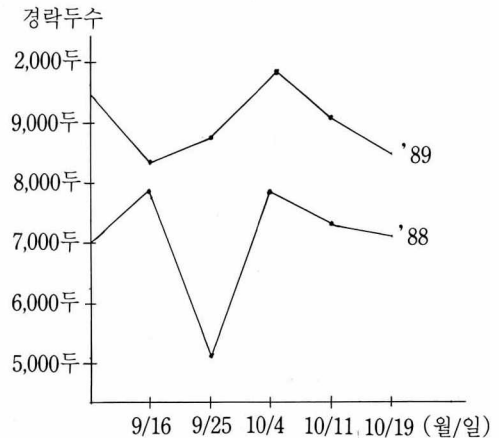
최근의 양돈경기동향

'89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 돼지사육두수는 5백46만7천두로서 3개월전보다는 9만5천두(1.8%), 1년전보다는 47만3천두(9.5%)가 각각 증가되었다. 이중 모돈수는 70만5천두로서 3개월전의 78만두보다 7만5천두(1.5%)가 감소되었으나, 1년전의 69만5천두보다 1만두(1.5%)가 늘어났다.

또한 월령별 두수현황을 보면 2개월령 미만은 1백72만3천두, 2-4개월령이 1백91만5천두, 4-6개월령이 1백5만5천두, 6-8개월령이 7만1천두, 8개월령 이상이 70만2천두로 나타났다. 이중 모돈수는 6-8개월령이 4만9천두, 8개월령 이상은 65만6천두이다.

한편 사육농가수는 22만호로 3개월전보다 1만2천호(5.2%), 1년전보다는 4만2천호(16.1%)가 각각 하락되었다. 따라서 호당사육두수는 24.9두이며, 이것은 3개월전보다 7.3%, 1년전보다는 19.1%가 각각 증가되었다.

'89년 9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도매시장별 돼지거래시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3개 도매시장의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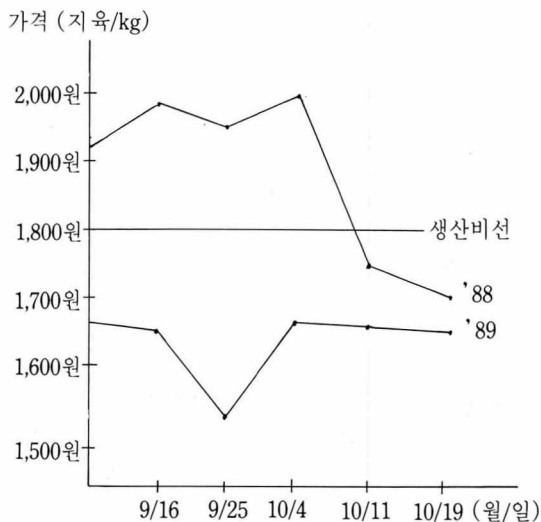


〈표〉 서울3개 도매시장의 돼지지육 경락시황

경락마리수는 25만두로서 전년동기의 22만8천두보다 2만2천두(9.7%)가 늘어났다. 지육경락가격은 1천6백24원으로 1년전의 1천9백7원보다 2백83원(14.9%)이 하락되었고, 최고시세는 10월 5일의 1천7백79원, 최저시세는 9월20일의 1천4백90원을 기록했다.

인천지역을 보면, 총 경락두수는 3만8천두로 전년같은 기간의 3만5천두보다 3천두(8.6%)가 증가되었다. 지육경락가격을 보면, 최고시세는 1천8백4원(9월 11일), 최저시세는 1천5백45원(9월 22일)이 각각 형성되었다. 평균가격은 1천6백36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9백84원보다 3백48원(17.5%)이 떨어졌다.

대구지역을 보면, 총 경락두수는 3만4천두로 1년전같은기간보다 5천두(17.2%)가 늘어났다. 지육 평균가격은 1천5백65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8백90원보다 3백



〈표〉 서울3개 도매시장의 돼지지육 가격추이

25원(17.2%)이 하락되었다. 이중 최고시세는 1천9백66원(9월 13일), 최저시세는 1천4백27원(10월 19일)을 나타냈다.

부산지역의 평균 지육가격은 1천5백원으로 이중 최고시세는 1천7백26원(9월 2일), 최저시세는 1천3백85원(10월 19일)으로 전년동기의 1천8백29원보다 3백29원(18.0%)이 하락되었다. 총 경락두수는 7만7천두로 전년같은 기간의 6만5천두보다 1만2천두(18.5%)가 늘어났다.

광주지역의 총 경락마리수는 1만6천두로서 전년동기보다 4천두(33.3%)가 더 경락되었다. 지육가격은 1천4백6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7백27원보다 3백21원(18.6%)이 하락되었고, 최고시세는 1천8백55원(9월 13일), 최저시세는 1천1백66원(10월 13일)을 나타냈다.

또한 전국 산지의 성돈가격은 8만8천원, 자돈가격은 2만1천원으로 전년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성돈가격은 2만3천원(20.7%), 자돈가격은 1만1천원(34.4%)이 각각 하락되었다.

양돈사료생산량을 보면, '89년 9월에 35만7천톤의 양돈사료를 생산하였다. 이중 자돈용사료가 7만1천톤, 비육용사료가 20만4천톤, 모돈용사료가 8만2천톤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자돈용사료는 5천톤(7.6%), 비육용사

료는 6천톤(3.0%)이 늘어난 반면, 모돈용사료는 2천톤(24%)이 감소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자돈용사료는 1천톤(1.4%)이 감소된 반면 비육용과 모돈용사료는 각각 3만7천톤(22.2%), 3천톤(3.8%)이 증가되었다.

한편, 전국 도축장의 '89년 8월까지의 총 도축두수는 5백8만4천두이며, 전년동기의 4백86만9천두보다 21만5천두(4.4%)가 더 도축되었다. 월별로는 1월이 71만8천두, 2월 61만4천두, 3월 72만2천두, 4월 69만두, 5월 76만5천두, 6월 73만8천두, 7월 74만9천두, 8월 83만7천두가 각각 도축되었다.

양돈경기전망

금년들어 계속 하락시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가격은 10월중순 이후 11월까지의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89년 9월 현재의 사육두수에서 10월 이후 출하될 4~6월령이 전년보다 19.0%, 사료생산량중 육성돈과 비육돈전기사료가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19.9%, 41.8%가 각각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공급량인 돈육통조림수입도 하반기에는 8백톤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돼지가격은 하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학생데모 등 사회적 불안과 경제침체, 또한 수입쇠고기 대량 저가 방출 판매로 소비량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여 산지 성돈가격은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사이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육가격은 1,450원에서 1,60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양축농민, 정부와 소비자가 합심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는 관세·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양축가의 생산비를 줄이는 정책과 수매비축등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 특히 우리 양축농민들은 모돈감축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소비자들은 수입농축산물보다 질 좋고 맛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소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